

소통하는 보건관리자 성장하는 보건관리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 조은정 보건관리자

글·사진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보건관리자라고 하면 산업현장에서의 모습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구청에도 보건관리자는 존재한다. 공무원 및 기간제 노동자 또한 다양한 작업환경 및 유해인자에 노출된 까닭으로, 시청·구청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선임된 지 이제 반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조은정 보건관리자의 포부를 살펴본다.

“구청에도 다양한 노동의 유형이 존재해요”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1월 1일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개칭되었으며, 현재 4국 1실 21과, 2사업소, 16개 동의 조직하에 800여 명 공무원과 3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 금정’, ‘활력이 넘쳐나는 젊은 금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금정’, ‘세대와 소통하는 열린 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로 금정구민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금정 국민체육센터, 금정구민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온천천 및 수영강 등의 친수공간과 금정산, 윤산 등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금정구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처럼 구민

들이 관내 시설 및 도로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수많은 노동력이 뒷받침된다. 지자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로, 금정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정식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만들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장과의 보건관리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금정구청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선임된 지 이제 반년, 선임 보건관리자가 현장을 부지런히 누비는 이유다. 각 부문 노동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금정구청만의 특수성을 포착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달의 한 마디

“보건관리자는
어둠 속 비로소 빛나는
촛불이다”



“현장에 서는 것은 보건관리자의 숙명이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만 쾌적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조은정 보건관리자는 금정구 곳곳 위치한 사업소를 찾아다니며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도로 보수, 환경미화, 녹지 산림 관리 등에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요.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어떠한 건강장애의 위험이 있는지,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법이죠.”



보건관리자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밝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어둠 속 비로소 빛나는 촛불처럼 노동자의 건강 고충을 밝히고,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죠 ●●



매주 안전관리자와 함께 진행하는 작업 현장 순회·점검은 보건관리자로서의 조은정을 단련시키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임상간호사로 일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살피며, 제게 부여된 소명에 대해 생각하고 합니다. 임상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다면, 보건관리자는 노동자가 환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일 텐데요. 노동자와 더욱 많이 소통하며, 맞춤형 보건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예방적 대응이 보건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조은정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촛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다.

“보건관리자는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밝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어둠 속 비로소 빛나는 촛불처럼 노동자의 건강 고충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죠.”

‘춧불’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신입 보건관리자의 다짐과 포부는 금정구 사업장 곳곳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와 성장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건강을 돌봐줘 고마워요.”,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시 조은정 보건관리자가 노동자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다.

“노동자의 진심 어린 한 마디에 가슴 뭉클할 때가 많아요. 노동자들의 감사 인사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소명을 되새기게 해주는데요.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반응을 원동력 삼아 하루하루 성장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현장을 향한 열린 마음, 보건관리자로서의 다부진 철

학은 조은정 보건관리자를 완성형 보건관리자에 가깝게 하고 있다. 풍부한 임상경험 또한 보건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보건소에서 집중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병원에서는 직업성 질병, 외상 등 다양한 환자들을 간호했습니다. 뇌졸중 치료에 특화된 병원에서도 근무했었는데요,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죠.”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건강 상담은 조은정 보건관리자에게 매우 익숙한 일로, 이는 노동자와의 유대감 및 신뢰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완성된 보건관리자이지만, 조은정 보건관리자는 하루하루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성장이 금정구청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하며, 노동자 또한 어제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오늘을 맞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